

# 오후 평의 1시간만에 끝내...탄핵심판 막판 난기류

## 현재 선고일 지정 왜 못했나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추측이 나온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결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현재가 통상 선고 3일 전째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10일을 기준으로 이날 발표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열렸지만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8일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를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다.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열렸다.

## 재판관들 의견충돌 가능성

### 오늘 발표하면 10일 선고 가능

### 선고일 합의 발표 저울질 시각도

현재는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예상됐던 선고 날짜 발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8일 발표하더라도 10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인 탈당 선언... 대선판도 흔들 '빅텐트' 세울까

### 반패권·개혁세력 결집 나설 듯

### 국민의당·바른정당 적극 리브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탈당 선언을 하면서 대선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김 전 대표의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이 인용된다면 야권은 조기 대선 시간표도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김 전 대표는 당 밖에서 비문(비문재인) 진영 인사들이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는 등 '비패권지대'를 만들고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탄핵이 인용된 뒤에는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판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권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 동반 탈당자들을 비롯한 비문세력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구상하면서 '빅텐트'를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전격 회동하고 이에 앞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과 회동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지대 '빅텐트'가 이뤄진다면 김 전 대표가 직접 '김'으로 나서든, '김메이커'가 되든지 대선에서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만약 현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김 전 대표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심의

'정치교체' 요구가 거세지면서 개혁이 유력하게 부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이후 다른 정당으로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당을 비롯,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경쟁적으로 리브롤을 보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함께 중도 개혁 세력의 정권교체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김 전 대표와)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권형 대통령제를 적극 지지하는 점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한다”며 개혁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 박대통령 겨냥한 검찰, 탄핵심판 예의주시

### 인용·기각파라 수사 방향 정반대

### 특검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수본은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관련 자료가 각각 약 2만쪽, 삼성 뇌물공여 관련 자료가 약 3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합류한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모두 투입됐으나 그 양이 워낙 많아 이번 주는 꼬박 기록 검토에만 매달려야 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주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기 특수본 수사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수사의 방향이나 강도, 순위 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등 여러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검찰 수사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여부에 따라 검찰이 전 박 대통령 뇌물 혐의의 수사 진행 경로가 180도 바뀔 수 있어 검찰도 현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검찰 수사도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이 바뀌고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로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 외에 대가성 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SK·롯데 그룹이나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결정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제 특수본 구성을 공개하며 밝힌 대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 탄핵심판은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 중대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정윤희 문건 유출 사건' 관련 의혹을 일부 다시 들여다봤으나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6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연장선에서 ‘정윤희 사건’과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안타깝다” 안희정·이재명 “재고해달라”...김종인 탈당 대응 온도차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하자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발전추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분이 다. 정권교체 이후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도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 모셨다.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랐다”며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신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김 전 대표를 돌려세우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나섰다. 안 지사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 와서 충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함께 집권을 준비하는 우리 당의 중심이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 대표에 민주당에서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나서 만류하고, 당에 이견을 가진 그룹들이 당 운영과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질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뷔시터, 야유회
- ▶ 펜션/콘도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itech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